

JUNE 2014

통권 제 4호

SEJONG CITY COUNCIL

세종

세종시의회소식



행복한 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JUNE 2104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13만 세종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2년 동안 세종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10여 년간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실행정수도 위한 판결, 수정안 추진 등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극복한 시간 보다도 길게 느껴질 만큼 세종시 출범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념해 왔습니다.

그동안 14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시의회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도 남긴 2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연기군의회를 주축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건설을 위해 지역과 정당 등 이해관계를 떠나 의원 상호간 소통과 배려로 짧은 시간에 광역의회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의원 워크숍,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모임과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2개 소속기관이 입주를 완료하게 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법제연구원 등 13개 국책연구기관도 입주를 완료하게 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자족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 이전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직원, 입주민 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유희준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강**
세종시의회소식

CONTENTS

- 06 초대 세종시의회 의정 성과와 과제
- 12 세종의정 소식
- 20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 24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 26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
- 29 5분 자유발언
- 32 성명서 및 결의문
- 36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정
- 40 세종시 가 불민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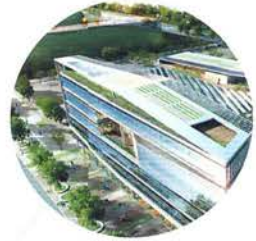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공보담당)
 발행일 : 2014년 06월 통권 제4호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전화 : 044-300-7242
 홈페이지 : <http://www.council.sejong.go.kr>



JUNE 2104
SEJONG CITY
COUNCIL

행복한도시 세종!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초대 세종시의회 의정 성과와 과제

“초대 광역의회 기반 굳건히,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에 진력해야”

2012년 7월 1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가 출범했다.

2012년 7월 1일 유환준 의장, 김선무 부의장, 강용수 부의장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7월 3일 김정봉 의회 운영위원장, 장승업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열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수 교육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으며, 7월 6일 역사적인 세종시의회 개원식을 마쳤다.

지난 2년 동안은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서 서로 다른 지역과 신분, 정당으로 구성된 세종시의회 의원은 성공적인 세종시 출범과 안정적인 건설을 위해 이해관계와 정당 등을 초월해 의원 상호간 소통과 배려로 단 기간에 광역의회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데 주력을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를 만들어가기에는 우리 앞에 풀어야 할 과제와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13개 국책연구기관 등 5천여명의 공무원과 직원들이 이주하게 되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세종시 건설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에 걸맞게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지역불균형 발전에서 오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이주민과 원주민의 화합을 통해 진정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건설하는데 매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것은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물론,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활발한 입법활동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인 입법 활동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일들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의회의 조직구성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례안 총 493건을 처리하였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각각 286건과 61건이다.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144건의 의원발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당 9.6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의원 전원이 쉴틈 없이 입법활동에 전념하였다.



증가하여 향후 세종시의 발전을 담당할 미래 인재인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과 인터넷 중독예방을 논의한 『청소년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광역의원으로서의 의정역량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에 역점

대부분의 의원이 기초의원 신분에서 광역의원으로 바뀌어 광역 의회의 위상에 부응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총 3회에 걸친 전체 의원 의정연수를 통해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실무능력과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 존중 및 배려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와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판매를 유기적으로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

광역의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전문성 향상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조례, 정책의 연구 및 주요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해 세종시의회는 3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다.

의정 성과와 과제



세종시의 보건교육 및 복지행정 진단과 행정적 대응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 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의 진단 및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 세종시 지역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이전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 연구모임(대표 이경대 의원) 이다.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특히,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5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 그리고 세종시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주민 여론을 조성하여 세종시 숙원사업인 연기 비행장의 조치원 비행장으로 합병과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소정면 소정리 소재 유류지원대의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각의 연구모임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의회가 되고,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시민의 소중한 뜻이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제4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복청, 김중서 장군 묘역, 남양유업, 성신양회 등 7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제3회 임시회에서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하자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소요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호수공원, 수질복원센터, 1-5복합커뮤니티센터, 폐기물 매립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제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소요사업비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하고자 해뜨는 집, 조치원을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미호천 야구장 편의시설, 부강면 도시계획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4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현장의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하였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현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민과 서로 소통하는 현장 의정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적극 대응

세종시의회는 2012년 7월 17일 주민의 건강한 삶의 욕구를 침해할 우려에 대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단식투쟁 중에 있는 동료 의원을 위로하는 한편, 현장에서 『부강공장 증설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여 주었다.

2013년 1월 24일에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1만4500여 m²에 콘크리트 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 신고 건에 대해, 환경과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사업자가 사업신청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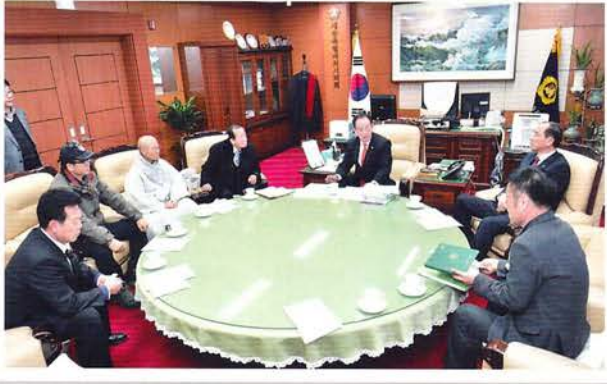


2013년 10월 21일에는 세종시청사 건설현장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현안인 정부의 총사업비 삭감에 따른 『세종시청사 정상 건설』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세종시 지역내 현안 해결은 물론, 수도권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건설 목표에 걸맞게 의회에서는 제6회 임시회에서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입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2차 임시회에서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성명서를 채택 후

의정 성과와 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제10회 정례회에서는 과학벨트 수정안 지지 성명서, 제12회 임시회에서는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확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야 정당을 초월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제10회 정례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7건을 지적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사업 및 시장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시책 추진상황, 계층별 차별화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로 총 98건을 지적하였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일 것이다.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세종시정과 교육행정 업무 현안에 대해서는 53명의 의원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핵심적이고 효과적 질문을 던져 대안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질의를 하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등 총 242건의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의원당 4.9건인 7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촉구했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물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의원들이 원활할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책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총 85건을 지적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세종시 특색사업인 스마트스쿨 구축 운영, 학교특성화 사업 추진상황,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대책 등에 총 32건을 지적하였다.

향후 여건과 과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도권외의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을 시작하였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으로 세종시의 정상건설이 차질을 빚은 만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인 세종시와 교육청,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부에 대해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당장 올해 연말에 법제처를 비롯한 4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국책연구기관 등 5천여명의 공무원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되고 자족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길일 것이다.

그 푸른 희망이 시작됩니다.



세종의정 소식

"2014년 세종시의회 사무식 개최"

민의의 전당으로서 여야정당을 초월해 협력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유환준)는 1월 2일 유환준 의장을 비롯한 강용수 부의장,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수 교육위원장, 김장식 의원, 김학현 의원, 진영은 의원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사무식을 갖고 갑오년 새로운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짐했다.

이 날 행사는 의장님 신년인사, 떡케익 절단, 건배제의(강용수 부의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유환준 의장은 "지난 한해 동안 세종시의회가 광역의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며 "작년 12월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세종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올해에는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여야 정당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자." 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간담회 개최

AI 예방과 조기 청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실천이 절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충열 의원)는 1월 20일 10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전북 고창지역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됨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방역 대책으로 ▲AI 방역상황실 운영 ▲일시이동 정지(Standstill) 대비 ▲축산차량 소독 통제초소 운영검토 ▲농가 차단방역 지원 강화 ▲유관기관별 역할분담 등을 논의했다.

이충열 위원장은 "가축방역은 시나 정부에서 아무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축산농가의 실천이 없으면 백약무효하다." 며 "AI 예방과 조기 청정화를 위해 외부인을 통제하여 철저한 전염원 유입을 방지하고 소독과 백신접종 등 전염병 한차단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편, 세종시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수는 현재 농가 56호에 414만 3천수로 집계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의회의의원 지역선거구 조례안 심의·의결

조치원읍 4개, 예정지역 3개, 면지역 6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는 1월 23일 위원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개정에 따라 시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명칭·구역과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는 13명, 비례대표의원 정수 2명 등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15명으로 의결하였다.

장승업 위원장은 “그동안 소정면, 전동면의 1개의 선거구 요구 등 선거구 심의·의결과정에서 시의원, 정치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간다소 갈등이 있었다.”며 “6·4 지방선거가 4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제2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신안리,침산리) ▲제3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봉산리) ▲제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반암리) ▲제5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제6선거구 부강면 ▲제7선거구 금남면 ▲제8선거구 장군면 ▲제9선거구 연서면, 전동면 ▲제10선거구 전의면, 소정면 ▲제11선거구 한솔동 9동~21동 ▲제12선거구 한솔동 1동~8동, 22동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가람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포함) ▲제13선거구 도담동 (고운동, 아람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포함)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정활동 펼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1월 24일 제15회 임시회가 폐회한 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전동면의 노아의집, 연서면의 영명보육원, 전의면의 성요셉치매 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을 둘러보고 장애인, 아동,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설 관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유환준 의장은 “올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병원성 A 전염병 발생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며 “세종시의회에서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종시를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정 소식

산업건설위원회, AI 이동통제초소 방문

귀성객들의 고향방문 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충열 의원)는 이충열 위원장을 비롯한 박성희 부위원장, 고준일 의원, 김선무 의원, 김장식 의원, 이경대 의원, 임태수 의원 등 의원 전원은 1월 29일 14시 고향원성 시 유입방지를 위해 지역내에 설치된 세종시 이동통제초소(3개소)를 방문하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근무에 고생하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충열 위원장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며 "우리 지역을 경유하거나 방문하시는 귀성객들의 고향방문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AI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귀성객들의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개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촉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년도 제1차 임시회가 2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유상수 세종시 부시장의 축사, 협의회 간부소개, 기념 촬영 등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여수 원유유출사고 보상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한편,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종시를 지지해 준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이 가능했으며, 최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등 안정적으로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다." 며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환준의장,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가입 촉구 건의

세종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원이 되어야

종시의회 유환준 의장은 2월 13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2014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부의장에게 세종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가입에 대한 촉구를 건의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10년간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현재 재원배분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이가 있어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환준 의장은 "세종시가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전국시도의회 중 서울시의회만 조합규칙안 수정을 동의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시 부의장으로부터 세종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간담회 열려

선거법 준수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해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00여일 남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단속활동 방향 ▲2013.2.13. 개정된 선거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2월 20일 10시 30분 세종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유환준 의장은 "세종시 이전 과거 연기군은 많은 부정선거로 인해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며 "이제는 명품 세종시답게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선거법을 준수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여 세종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하는 공명선거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세종의정 소식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 발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은 2월 20일 11시 세종시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대회를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일본정부가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2013년에 이어 올해도 내각 각료격인 정무관의 파견을 하는 등 독도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 망언을 계속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세종시 베어트리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규탄대회를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유환준 의장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고, 미국에서 동해·일본해의 병기 확산 속에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마치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인식되어 독도문제를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갈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위안부 문제 인식이나 역사교과서 왜곡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주변국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해야한다." 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현장방문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추진계획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헌)는 3월 19일 10시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확인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점검을 통해 원칙에 따라 완공된 시설물을 인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2-3 생활권 자동크린넷 시설,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방문하여 NH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학헌 위원장은 "이번에 방문하는 두 시설은 2015년 2월에 시에서 인수할 시설로서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는 관로를 통해 '자동크린넷' 이라는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에너지로 재활용하여 세종시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신재생·친환경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하자 및 미흡한 부분을 조치 후 인수할 것이다." 고 밝혔다.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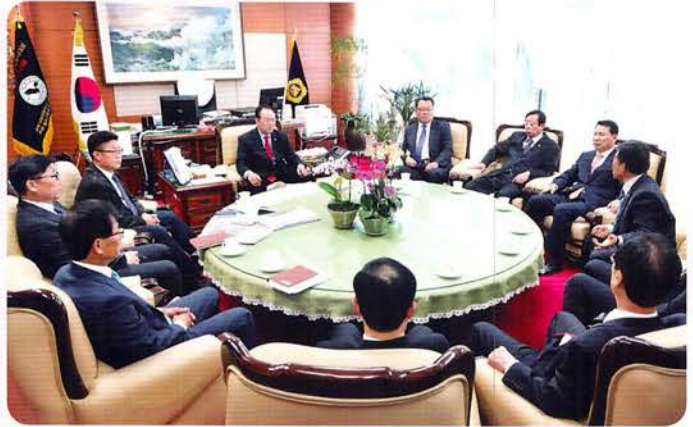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3월 24일 제16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의장실에서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언론에 하청업체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벽체 철근 간격을 넓게 해 실제로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난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행복청에서는 세종시 내 철근배근 부실시공 현장의 실태조사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가동하였으며, 건설사에서는 공식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면밀한 전수조사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방문 실시하기

하였고, 향후대책 논의를 위한 입주예정자, LH, 행복청 등과의 연석회의를 중재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환준 의장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이미지를 위해 행복청과 LH 등 관련 기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행복청 방문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 유환준 의장과 김부유 의원은 4월 2일 11시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 촉구를 위해 행복청을 방문하였다.

이 날 이충재 행복청장과 면담을 가진 유환준 의장과 김부유 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며 "특히, 지난 1일 태안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만큼,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시공된 아파트를 재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세종의정 소식

2014년도 상반기 입법고문 · 고문변호사 간담회

입법 ·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4월 8일 11시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원의 조례 입안 및 의안심사 등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법률적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입법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고문 · 고문변호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환준 의장을 비롯하여 서우선 입법고문, 손차준 고문변호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영진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추가로 위촉하고, 당면현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주요 토의내용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 충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제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희)는 4월 25일 10시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성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장식 의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7,605억원보다 1,408억원(18.5%) 증가한 9,013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55억원 보다 935억원(17.5%) 증가한 6,290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0억원 보다 472억원(20.9%) 증가한 2,722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거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청사환경정비 등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 2억원, 체육회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 등 총 7건, 5억 4백4십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민간위탁금 4천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의결했다.



박성희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심사의결했다." 고 밝혔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공공시설물 완벽한 이관 탄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현)는 4월 28일 11시 3층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3회, 간담회 5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보고와 이관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으며, 폐기물매립시설·어진동(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2회 실시하여 이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활동성과로는 ▲세종호수공원 등 한시적 관리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후 이관 ▲사업초기 계획·설계 및 공사착공 단계에서

시의 의견 반영 요구 ▲은하수공원, 나성·송원 어린이집, 2-3복합커뮤니티센터 등 6개 시설을 완벽히 이관하였다.



김학현 위원장은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소요인력과 유지 관리비를 확보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5월 8일 11시 30분 의장실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김학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성희 의원, 조명희 세무·회계사, 김일중 세무·회계사, 유용철 세무·회계사, 이중기 전 연기군 자치행정과장, 한경전 전 연기군 사회복지과장 등 7명이다.



유환준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민들에게 공시해야 하는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잘 검토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김정봉(위원장)
- 김장식(부위원장)
- 박성희
- 박영송
- 진영은
- 김부유



주요 안건 처리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 제14회 정례회(1.15.)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 제14회 정례회(1.15.)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 제14회 정례회(1.15.)
- ▶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제15회 임시회(1.22.)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5회 임시회(1.22.)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회 임시회(3.20.)
-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제16회 임시회(4.14.)
- ▶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7회 임시회(4.22.)

주요 활동

- ▶ 의정활동 선진화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견학(3. 10.)
 - 일 시 : 3. 10.(월) 09:30 ~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밀마루전망대 등
 - 인 원 : 16명(위원 6, 관계공무원 10)
 - 이동방법 : 의회버스(45인승) 배차
 - 세종시청 및 의회동 청사건립을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세종청사의 사무실 및 옥상정원 등 청사 외부공간 배치에 대하여 연찬
-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가
 - 제13차 정기회(대전광역시 / 2. 27.)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 제14차 정기회(울산광역시 / 3. 19.) : 일본의 위안부 부정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장승업(위원장)
박영송(부위원장)
강용수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주요 안건 처리

- ▶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제15회 임시회 (1. 20)
-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제16회 임시회 (3. 17)
-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제17회 임시회 (4. 18)
- ▶ 2014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예산안 :
제17회 임시회 (4. 21)



조례안 처리

- ▶ 제15회 임시회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1건
- ▶ 제16회 임시회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제14회 정례회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3건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이충열(위원장)
- 박성희(부위원장)
- 고준일
- 김선무
- 김장식
- 이경대
- 임태수

주요 안건 처리

- ▶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제15회 임시회 (1.20)
- ▶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제16회 임시회 (3.17)
- ▶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영임대주택 건설)
제16회 임시회 (3.17)
- ▶ 01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17회 임시회 (4.21)



조례안 처리

- ▶ 제15회 임시회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 제16회 임시회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 ▶ 제17회 임시회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교육위원회

위원

임태수(위원장)
진영은(부위원장)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주요안건 처리

-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제15회 임시회('14.1.21)
- ▶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7회 임시회('14.4.23)



조례안 처리

- ▶ 제15회 임시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 ▶ 제16회 임시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 ▶ 제17회 임시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박성희(위원장)
 김장식(부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이충열
 고준일
 김부유

주요 안건 처리

- ▶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7회 임시회(4.25.)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김학현(위원장)	박성희
김장식(부위원장)	박영송
고준일	이경대
김부유	진영은

주요 활동내역

- ▶ 공공시설물인수 업무보고 청취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3. 19.)
-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현장방문
 - 일 시 : 3. 19.(수) 10:30
 - 대상사업장 : 2개소
 (2-3생활권 자동 크린넷 시설, 폐기물 연료화 시설)
 - 방문결과보고서 집행부 공문발송(3. 24)
- ▶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4. 28)
- ▶ 활동결과 보고
 -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4. 30)



의원발의 제 · 개정 조례



김부유 의원

세종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제16회 임시회)

세종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박성희 의원

세종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5회 임시회)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임.



김선무 의원

세종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회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박영승 의원

세종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회 임시회)

「모자보건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고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김장식 의원

세종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제16회 임시회)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 재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가에 직접직불금을 지원 하려는 것임



장승업 의원

세종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회 임시회)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안 임.



김정봉 의원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회 임시회)

경로당 설치 · 지원함에 있어서 경로당의 1마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포함하여 경로당 신 · 개축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진영은 의원

세종시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회 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 · 삭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공정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학현 의원

세종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회 임시회)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 구호기금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시정 질문과 답변

세종시립의원 이전 설계용역비 국비신청 / 조치원 서북부 개발 사업



김부유 의원

Q 현재 세종시립의원의 리모델링 예산도 수십억의 국비와 시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에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현재 세종시립의원 이전설계 용역비를 신청하였다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것과 당초 시립의원 위치 등에 대한 지적을 의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귀기울여 듣지 않고 일방통행 식으로 집행부 자의로 현 장소에 시립의원을 만들어 상당한 예산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비가 아닌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추진하는게 맞는지?

A 시장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로 용역비 13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능 조기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 시장 ▶ 세종시 출범 전에 연기군에서 재정이나 사회여건상 진행하지 못하다가, 출범 후인 2012년 12월부터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최적의 사업구역 지정 방안 및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과거 검토되었던 구역내 약 1/4 규모(232천㎡)로 용역이 수행되었음.

부강면 소재 충광농원 악취 절감 대책



김정봉 의원

Q 부강면 충광 축산단지로부터 불어 오는 축산 악취로 4,300여 부강면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저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생균제 등 유용미생물 보급확대와 단지내 퇴비공장의 시설보완을 요구하였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 저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해 12월에 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하는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를 포함한 환경부·농축산부 등 정부부처와 대학교수, 축산 관계자, 시청 TF팀 등으로 '충광농원 발전 포럼'을 구성하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충광농원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시청 TF팀의 구성 및 그동안의 활동현황, 향후계획과 발전 포럼의 활동현황 및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원 서북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비가 아닌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추진하는게 맞는지?

A 기획조정실장 ▶ 충광농원 축산악취로 인한 부강리 주민 생활 불편 호소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를 팀장으로 하는 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의 '충광농원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포럼(11명) 참여를 요청하였음. 또한, 연초에 계획된 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의 '악취 저감기술 지원'과 '충광농원 개선대책 전문가 포럼'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대책



임태수 의원

Q 행정,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한 데 모아 운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까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건립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우선 휘트니스센터는 지나치게 큰 공간 설계로 인해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실은 문화재청 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 자치공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주차장도 23면에 불과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솔동 휘트니스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활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주차장 문제 해결은?

A 안전행정복지국장 ▶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복청이 내에 위탁하여 건립한 시설로서 최근에 완공된 어진·도담동 복컴에 비하여 규모나 시설 내용 면에서 매우 작고 부족한 것이 사실임. 그 이유는 2006년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이 수립 당시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부족한 주차장과 주민센터 활용공간은 행복청 등 정부부처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펴 오고 있음. 또한, 현재 한솔동 복컴 3층에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실'에 대하여 시설운영자인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내 이전하도록 하겠음.

학생활동 오케스트라단 지원 가능 여부



김부유 의원

Q 성장기 학생들에 있어서 음악교육, 특히 악기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지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차원의 관현악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배움에 목말라 하는 우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세종 영 오케스트라'라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 영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외부기관 초청이 줄을 이을 정도로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지속적인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 여부와 절차와 방법

A 부교육감 ▶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특교사업 지원을 받아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만 대응투자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케스트라단은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생이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참여·운영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우리가 있다고 봄.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추진 현황



김정봉 의원

Q 3년전에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방의 쓰나미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 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일본정부가 핵연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기간인 향후 40년 동안 '수증기를 통한 공기 오염'과 '물을 통한 바다 오염'이 계속해서 공기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측했다.

방사능에 피폭되면 방사능에 의해 손상된 DNA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암 억제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암은 물론 다른 장기 전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성인보다는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학교시설 못지 않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A 부교육감 ▶ 우리 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따른 조례'에 따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계획을 2014년 3월 10일에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세종시청과 유관기관의 협조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도 수산물 구매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강화,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음..

세종열병합발전소의 육영사업 지원 대상 및 금액결정에 대한 절차 개선



임태수 의원

Q 세종시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화장장을 포함한 낱골 시설은 물론, 발전시설까지 도시 내에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예정지역내 공동주택, 상가 및 공공시설에 사용될 에너지원을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가 천연가스 연소를 통해 발전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 집단에너지 시설로 주민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인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5,6,7단지 입주주민들에게는 소음과 악취,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주변지역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및 학자금·장학금 지급과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발전소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세종지역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학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법에 대한 입장은?

A 기획조정실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인 세종열병합발전소장이 시행하고 대상사업 등을 학교와 직접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 12월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에 대한 도서구입비 등 교육지원사업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향후 육영사업 선정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음. 앞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육영사업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발전소와 사전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음.

5분 자유발언

방법용 CCTV설치 사업 확대추진 촉구

제15회 임시회

김부유 의원

- ▶ 세종시에 17개 정부부처 중 10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각종 재해나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주는 안전망인 CCTV를 설치하여 범죄의 사각지역을 줄여야 합니다.
- ▶ 시에서 운영하는 CCTV는 338대이며 이중 대부분이 주정차 단속과 다목적용이고, 방법용과 재난재해 관리용은 각각 3대와 9대 불과합니다.
- ▶ 특히 조치원읍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각종 강력범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범죄 전문가들이 강도와 강간과 같은 기회성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위에 CCTV 설치여부여서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고 한 만큼, 방법용 CCTV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원 시북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비가 아닌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추진하는게 맞는지?

공동주택 방법용 CCTV와 가로등 설치 촉구

제16회 임시회

- ▶ 현재 우리시에서는 33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치원읍은 주정차단속용 16대, 다목적용 63대, 재난재해 감시용 9대, 어린이보호구역 31대, 시설물 관리 5대, 차량용 식별용 12대 등으로 90개소에 136대가 조치원읍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 세종시 출범이후 조치원읍은 지역내에서 최대 변화가이자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여 경찰인력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한 조치원읍 죽림리, 번암리, 신흥리, 침산리, 신안리 등의 아파트 단지 경계선에 CCTV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종 범죄나 사고를 감시하고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하는 등 밝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문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조례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안 제시해야

제17회 임시회

- ▶ 지방의회는 가장 큰 권한과 책무는 '조례발의'에 있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은 상위법에 따라 제정 혹은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고, 그 조례들에 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이 발전하고 지역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 ▶ 명품 세종시 건설은 하드웨어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청소년,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더 많이 발의해야 합니다.
- ▶ 또한, 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하여 보다 넓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조치원을 '침산2근린공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제15회 임시회

박영송 의원



- ▶ 침산공원은 1954년 5월 공원결정이 최초 고시된 이래, 2005년 3월에 침산공원에서 '침산2공원' 이 분리·고시되었고, 이후 2008년 258,930㎡의 면적으로 변경·확정 후 2009년 6월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습니다.
- ▶ 그러나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침산2공원' 사업 추진실적은 족구장 시설을 제외하고, 2필지 매입비 8억원과 기본 설계용역 75,000천원, 2014년 토지매입비 14억원이 전부로서 연기군과 세종시의 사업추진이 미비했습니다.
- ▶ 2009년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만큼, 지금처럼 몇 군데 토지매입하는 것처럼 진행하지 말고 연도별,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해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하며, 공원녹지과 뿐만아니라, 문화체육담당, 환경담당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순환형 재개발로 인구 10만 조치원을 건설해야

제16회 임시회

- ▶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치원을 인구 10만명의 젊은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서, 조치원을 개발을 통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잡힌 도시로 만들어 동맥경화에 걸린 80대 조치원을 20대 청년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순환형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합니다.
- ▶ 순환형 재개발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주민이 인근지역에 위치한 이주용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사업기간의 단축은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높여주고,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살게되어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 ▶ 조치원을 규모를 감안해 보면 약 1천에서 2천 가구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미리 만들어 이주대책을 세워 놓고, 원도심을 권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튼튼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제16회 임시회



고준일 의원

- ▶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염전노예,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 생활고로 인해 갓난아기와 자살한 모녀' 등 일련의 사건들은 날로 커지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더욱더 촘촘히 해야 하는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 ▶ 특히, 세종시는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원주민, 세종시에 편입되어 낯선 환경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복지혜택을 요구하기 힘든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답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일시적인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사팀을 구성해 튼튼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제17회 임시회

- ▶ 행복아파트는 보상지역내 영세민과 세입자, 1억 미만 가옥을 소유한 보상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 임대료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및 정부예산으로 건립된 아파트입니다.
- ▶ 또한, 경로복지관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00세대를 건립 중입니다.
- ▶ 그러나, 행복아파트는 현재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장기연체자가 다수 발생하고, 경로복지관은 아직 모집주체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제반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책정하는 일반 임대주택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행복아파트 임대료와 앞으로 입주할 경로복지관의 임대료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성명서

STATEMENT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정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정부는 내각 각료 격인 정무관 파견을 결정했다.

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국적 그리고 국가차원의 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행되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베신조 일본 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정부 및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부정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등 피해국가에 대한 제2의 침략행위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기까지는 대일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밝히고, 일본 정부와 극우인사들의 비이성적인 망언과 망동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 주변 국가들에게 저지른 침략·침탈 행위와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 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라.
- 하나.** 일본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4년 2월 20일

결 의 문

RESOLUTION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지지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종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4년 4월 30일

회기별 주요 의정

제15회 임시회

2014. 1. 17 ~ 1. 24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처리하였다.

5분 자유발언

- ▶ 김부유 의원, 박영송 의원

주요 안건

- ▶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

-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9건

제16회 임시회

2014. 3. 12 ~ 3. 24



13일간의 회기로 개최한 제1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동의안,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영임대주택 건설 동의안, 조치원을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처리하였다.

5분 자유발언

- ▶ 김부유 의원, 박영송 의원, 고준일 의원

주요 안건

-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동의안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 ▶ 교육감제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기타안건

- ▶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영임대주택 건설 동의안
- ▶ 조치원을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제17회 임시회

2014. 4. 16 ~ 4. 30



15일간의 회기로 개최한 제17회 임시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종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5분 자유발언

- ▶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

주요안건

- ▶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시 결의안
- ▶ 조치원을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

- ▶ 시장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0건
- ▶ 교육감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 ▶ 의원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기타안건

- ▶ 세종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보고의 건
- ▶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보고의 건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중도일보 2014년 01월 21일 12면 (지역)

“긴급상황실 운영… 차단 강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특별방역대책 건담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열 의원)는 20일 최근 전국 고령지역 고병원성 A1(H5N8)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에 대한 긴급 건담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사진>

이날 건담회에서 특별방역 대책으로 ▲AI 발생 의심신고 즉시 ▲일시이동 장치(Standstill) 대비 ▲확산차단 속도 통제초소 운영건보 ▲농가 차단방어 지원 강화 ▲유관기관별 역할분담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광배 기자 114.4*13.5cm

중도일보 / 1. 21

충청투데이 2014년 01월 27일 15면 (지역)

세종시의회가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설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완준)는 24일 제15회 임시회가 폐회한 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경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기관을 조성하고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이날 시의회는 전통면의 노이집, 연서면의 영명보육원, 전의면의 성요셉치매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을 둘러보고 장애인, 아동,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설 관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www.chungcheong.com 6.2*10.7cm

충청투데이 / 1. 27

충청일보 2014년 01월 27일 15면 (지역)

2014년도 제1회 임시회
2014. 1. 27. 화요일

“AI 방역대책 마련하라”
전국시도의회회장단, 축구 결의문 채택

전국시도의회회장단(위원장: 강원)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전국시도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AI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AI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으로, AI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은 “AI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으로, AI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김광배 기자 114.4*13.5cm

충청일보 / 2. 14

중도일보 2014년 02월 03일 12면 (지역)

‘피해 최소화’ 이동통제초소 방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근무자 격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열 의원) 소속 의원들은 설 연휴 기간 중 고병원성 AI 유행방지를 위해 지역내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 3곳을 방문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역근무에 고생하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종열 위원장은 “귀성객들의 이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지역을 경유하거나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시 가금농장 방문 자체 등 AI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귀성객들의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근무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이동통제초소는 총 3곳에 12명의 인원이 2개조로 나눠 교대 근무했으며, ▲제1초소는 전의면 금사리 ▲제2초소는 소정면 대곡리 ▲제3초소는 부강면 등곡리에 설치됐다. 세종=김광배 기자 7.9*15.4cm

중도일보 / 2. 3

大田日報 2014년 02월 04일 04면 (충남)

세종시의회는 20일 일련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및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촉구했다.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의회, 日 독도 도발 규탄 남' 행시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정부는 독도 침략의 역풍을 예방하고, 예방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독도 영유권은 우리 국민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독도 영유권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정부는 독도 침략의 역풍을 예방하고, 예방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독도 영유권은 우리 국민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종=김광배 기자 114.4*13.5cm

대전일보 / 2. 21

중도일보

2014년 03월 20일 12면 (지역)



공공시설을 현장 특위 방문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7.9x6.6)cm

중도일보 / 3. 20

大田日報

2014년 04월 03일 06면 (지역)

“모아미래도 재시공해야” 행복청장-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과 김부유 의원은 2일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 (8.8x10.2)cm

대전일보 / 4. 3

중부매일



세종시의회는 24일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수립을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11.3x11.1)cm

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언론에 화형업체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벽면 철근 간격을 넓게 보... (11.3x11.1)cm

중부매일 / 3. 24



중도일보

2014년 04월 08일 12면 (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위해 입법기능 활성화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간담회- 자치법규 제·개정 논의... (14.3x15.4)cm

중도일보 / 4. 9

忠淸日報

2014년 04월 28일 08면 (지역)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1회 추경안 처리

전년비 18.5% 늘어난 9013억원... 복리증진 주력... (11.6x9.7)cm

충청일보 / 4. 28

세종시가 볼만한

하얀 빛 구절초의 모습 영평사!

영평사는 1987년에 주지 환성이 요사 건립부터 시작하여 중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6동의 문화재급 전통건물과 3동의 토굴을 갖춘 대한민국 전통사찰 제78호의 수행도량인 영평사는 가을이면 절 안팎과 산야가 온통 하얀 구절초 꽃무리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장군산 구절초 꽃 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로 이름이 높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문화재를 간직하지도 않은 사찰이지만 가을날이면 어떠한 보물보다도 아름다운 자연의 특별함을 보여준다. 음력 9월이면 하얗게 꽃잎을 피우는 구절초는 활짝 핀 아이의 손바닥처럼 작고 앙증맞다. 장군산 자락을 따라 일주문에서 경내 곳곳에 피어나는 하얀 빛 구절초의 모습은 큰 스님의 설법만큼이나 깊은 감동을 준다.

여느 야산에서도 쉽게 보이는 구절초지만 무리지어 피어난 모습과 은은한 꽃내음으로 더욱 편안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맞는다. 구절초가 만개한 영평사는 작은 축제를 준비한다. 꽃의 흰빛으로 달빛을 받아 영롱한 밤의 축제는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다. 구절초로 만든 전통 차와 함께 영평사의 또 하나의 명물인 죽염된장과 상설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과서박물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과서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이다. 대한교과서(주)[현 (주)미래엔]가 1960년대부터 건립을 구상하여 오다가 2003년 9월 24일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은 교육의 근간인 교육문화 발전과 교과서의 발전사 및 제작과정을 한눈에 살펴보고, 미래의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선조들이 서당에서 배우던 서적에서부터 개화기 교과서, 일제강점기 때의 교과서, 8·15광복 직후의 교과서, 현재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서들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2개의 상설전시관(교과서박물관, 인쇄기기전시관)과 기획전시실·홍보관·자료실·세미나실·휴게실로 이루어지며, 교과서박물관에는 한글관, 교과서의 어제와 오늘, 추억의 교실, 교과서 제작과정, 세계 교과서, 북한 교과서, 미래 교과서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자료실에서는 한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외국 교과서, 고서, 연속간행물, 단행본, 비도서자료 등 교과서 및 교육 관련자료 15만여 권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이고,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성탄절과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 25-1번지에 있다.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소식지인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담당자 전성수)
우편번호 : 339-705

전 화 | 044-300-7242

팩 스 | 044-864-0589

이메일 | 77jss@korea.kr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의회!

